

황강 31

박태일(시인)

두 시간 고향 길
의령에서 오른 그이는 장단
검은 낮빛에 수더분한 옆낫
장단 1구일까 2구일까 물으면서
우리는 어느새 버스 동무
그이는 뱀띠 나는 말띠
허굴산 악견산 금성산 삼산에 품긴 장단
미혼에 교통사고로 떠난 서른 살 조카
슬픈 치상의 아침이란다
그이나 나나 나이 들어 가끔 겪은 일
열다섯에 부산 태화고무 거쳐 창원 김해로 떠돌았다는
세월 나는 짐작하기 어렵다
삼가로 의령으로 진영으로 나서거나
초계로 적교로 창령 수산 길
여덟 시간 아홉 시간 그런 부산 버스
버스 차장 이야기 함께 되새기며
바깥 하늘도 눈썹 위에 잠시 없는다

가을 걷고 이고 다시
지갯군을 빌려 집으로 갔다는
그때 쌀포대는 팔십 킬로그램
찢살 씹듯 웃으며 들려 준다
합천 정류장에서 대병 버스로 갈아타고
나는 고품 지나 내렸지만
그이는 대병 가서 다시 장단 택시를 타리라는데
하루 네 차례뿐인 버스길 나누면서
모처럼 산천이 가까워 보이는 것은
이제 갓 여중 나와 버스간에 매달렸던
어느 해 고모 오라잇 모습 기억 탓이 아니다
장단 물 맑고 바위 많은 골
그 골짜기 바윗돌 낮빛을 닮은
뱀띠 합천이씨를 만나
그이 초상길 함께 밟으며
가호리가 가리에서 다시 가호리로 돌아왔다는
잊었던 땅이름까지 주받았던 인연이란
그이 아내가 봉산도 걸안 내 집안
고령박씨를 아내로 둔 일이 반가워서가 아니다
걸안 산다는 장모 이야기며
만난 지 한 달에 혼사 올린 옛말까지
입마개 탓에 더 넉넉해진 눈빛
두 시간 고향 길
혼자 걸음에
끓는 가을빛은 자꾸 뒷굽 밟는다.

박태일 jiook2@hanmail.net